

## 현대 문예사조 개관 1 낭만주의(Romanticism)

고 원(高遠)

### 연재 강좌를 시작하면서

문학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서양의 현대 문예사조에 대해서 대강은 알고 있다. 실제 창작에서 어느 사조를 의도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특별히 의식하지 않은 채 자연히 그런 성향을 지닐 수도 있고, 전혀 무관한 작가도 있다. 어쨌든 간에 조금씩은 자신의 체질 속에 소화된 문예사조의 흐름이 있는 건 사실이다. 음식의 영양과 비슷하다. 그 '영양'이라는 게 사실은 대단히 조직적이며 선택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잘 알고 섭취하면 더 가치가 있다.

나는 학업과 직업 양면에서, 그리고 문필 생활에서도 창작 외에 문



New York University 비교문학박사, 1952년 3인 시집 『시간표 없는 정거장』을 출간한 이후로 50여년 동안 수많은 시집, 시조집, 산문집 등을 저술. 이를 『고원문학전집』으로 정리. 현재 라벤 대학 교수, 글마루 지도 교수, 미주한국문인협회 고문.

학 이론에 내내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다 보니 현대 문예사조의 발자취를 좀 쉽게 내 글로 정리해 놓는 일을 늘 빛으로 생각해 왔다. 연구 논문이라기보다는 ‘입문’ 정도의 소개를 해야겠다는 의무감이 다. 앞으로 6회에 걸쳐 열 가지 사조, 운동을 극히 개론적으로 얘기 하려고 한다. 이 연재장작이 어느정도 독자들의 이해와 창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겠다.

## 낭만주의 운동

### 1. ‘낭만’의 개념

“낭만”이라는 말은 일본에서 한문의 ‘浪漫’이 일본음으로 ‘roman’에 가깝기 때문에 만들어낸 단어를 한국말로도 그대로 쓰게 된 줄 안다. 시인이면서 이론가였던 金起林 교수는 “로만주의”를 선호하면서 ‘로만’을 한문으로 ‘魯慢’이라고 표기하기를 주장한 일이 있지만, 널리 수용되지 못하고 말았다.

“낭만”은 이미 오랫동안 우리말로써 통용돼 왔고 글자 뜻이 서양어에 들어 있는 개념을 꽤 잘 나타내기 때문에 별로 불편을 주지 않는다. 말 자체가 제법 낭만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영어의 romanticism은 물론 romantic에다 ism을 붙인 말이다. 무엇이 ‘로맨틱’한 것일까.

일반 용어로서는 공상적인, 비실제적이고 실현하기 어려운, 소설 같은, 허구(虛構)의, 가공(架空)의 것, 그래서 괴기(怪奇)하기도 한 것이라는 뜻을 가졌다. 이런 성질들이 다소 부정적인 면을 지닌 반면에, 신비로운(시비적인), 그리고 영웅적인 것을 가리킬 때는 좀 더 긍

정적인 성질이 들어있다. 그보다도 더 보편화된 뜻은 서정적(抒情的)이고, 감미(甘味)롭고, 아름답고, 이상적인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보자면 낭만은 곧 ‘서정의 샘’이라고 불러도 좋다.

문학에서는 낭만주의 운동과 별개의 것으로 프랑스의 “roman”을 같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 ‘로망’은 원래 중세의 운율체(韻律體) 이야기였다. 주로 기사도, 모험, 그리고 애정을 애기체로 다룬 작품이다. 현대의 전기(傳奇)소설이 ‘로망’에 속하고, 오늘날 흔히 사용되는 ‘romance’도 그런 문학을 가리켰다.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대개 ‘신비의 보물’을 찾아 멀리 모험의 길을 떠나는 기사들, 혹은 외로운 영웅들이고, 풍경으로서는 절벽이나 폭포, 또는 폐허 등이 지닌 특징을 이루고 있다. 등장인물의 감정은 따라서 우수(憂愁)—구슬픔과 함께 그 반대이면서도 동반하기 쉬운 정열, 그리고 자연의 신비에 대한 심취 등이 압도적이다.

프랑스에서는 지금도 ‘로망’이란 말이 소설을 가리키고, 2차 대전 후에 일어난 ‘앙띠 로망’ 운동은 재래식 이야기 중심의 소설에 대한 반발, 즉 ‘비소설’에다 초점을 두었다.

여기다가 ‘꿈 같은 연애 감정’과 ‘시적(詩的)’인/서정적인 분위기 등을 강조하는 통상 개념을 겹쳐 놓아보자. 이상의 모든 자질, 요소를 종합하고 융합하면 문예사조로서의 낭만주의에 다소 접근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 2. 신고전주의에 대한 반발

낭만주의의 발생 원인을 쉽게 말하자면 18세기 유럽의 정신 풍토를 지배하고 있던 신고전주의(Neo—Classicism)에 대한 거역이다. 그

이전에 이미 고전주의는 특히 문학, 철학, 예술, 비평 등의 분야에서 그 뿌리를 고대 그리스 문화와 고대 로마 문화에 박고 있었다.

보통 간단하게 이성 제일주의라는 기본 개념 때문에 고전주의가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에 반대되는 입장이라고 인식돼 왔다. 그러나 고전주의도 아주 엄격한 의미로 보자면 조금은 낭만주의와 리얼리즘이 서로 겹치는 점을 가졌다고 지적되기도 한다. 이성과 감정/감성은 완전히 상극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낭만주의의 당연한 출발을 이해하기 위해 고전주의의 근본적인 특질을 살펴보기로 한다.

고전주의는 어떤 결정적인 사고(아이디어)나 태도/자세(attitude)가 주로 그리스와 로마의 특색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런 전통적인 고대 문학 예술의 모방이거나, 적어도 그 반향(反響), 울림을 통해서 발전을 시도했다. 그래서 고전적이다. 지금도 학문 분야에서 ‘클래식’은 그 두 가지를 가리킨다.

그러면 특별히 무엇에다 역점을 두었는가. 몇 가지 개념적인 원칙을 들어보자. 억제, 범위의 제약, 이성 중심, 형식 존중, 일관된 의도와 목적, 명확함(함축과 다른 clarity), 단순성(simplicity), 균형미, 구조/구성과 논리적인 조직에 대한 유의, 간소(簡素)한 양식(style), 엄격한 윤곽, 온건/온화, 자제(自制), 지성(知性, 주지주의), 단정/단아(端正/端雅—decorum), 전통 존중, 보수(保守), 양식(良識), 창작보다는 모방.

이처럼 엄한 규범이 지닌 힘이 컸다. 영문학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했다. ‘낭만적’인 극작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고전주의적인 면이 비쳐있고, 시인 스펜서는 대담하게 버질(Virgil, Vergil)과 호머(Homer)를 모방할 만큼 고전주의 영향을 받았다. 존 밀튼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온전한 균형을 보여준 시인으로 인정되고 있다. 고전주의의 영향은 이밖에도 많은 예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전통 배경을 등에 업고 17세기 후반부터 낭만주의의 발생기

(1789년) 사이에 신고전주의(Neo—Classism) 시대가 왔다. 영문학에 서는 이 기간을 대략 3단계, the Restoration Age(1660~1700), the Augustan Age(1700~1750), the Age of Johnson(1750~1798)으로 구분한다. 그리스와 로마 전통의 모방에 치중하던 고전주의 태도를 벗어난 한편, 엄격한 규범에 치중한 문학이 낭만주의의 발상기로 넘어가기 전까지 지속됐다.

### 3. 낭만주의 발생의 조건

#### ① 시대적 배경

신고전주의, 고전주의를 거역하고 낭만주의가 태동한 데에는 시대적 조건 두 가지가 중요한 작용을 했다. 하나는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이고, 다른 하나는 볼란서(프랑스) 혁명이다. 이런 혁명 배경 자체가 낭만주의의 특성을 암시해 준다.

1830년에 영국에서 맨 처음 방직 기계가 등장한 게 확대돼서 생산 수단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산업혁명이다. 세계 각지에서 소규모의 수공업(手工業)이 기계문명에 의한 대공장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그것이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이어졌다. 이 변화는 재래식 삶의 양식, 습관, 사회질서, 가치 추구 등을 뒤바꿔 놓았고, 따라서 정신적, 정서적 혁신을 가져왔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문학 예술이 여기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사실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에 부르봉 왕조의 절대주의 제도에 반기를 든 시민 혁명이 일어났다.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변동에 그친게 아니다. 정부의 실정(失政) 뿐만 아니라 엄청난 사회계급의 격차와 혁명문학

의 영향 등이 불을 질러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이룩했다. 혁명의 결과로 국민의회는 인권선언을 선포하고, 새로운 헌법을 제정해 공화 체제가 성립됐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적 사건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함께 부정적인 현상도 나타나고, 새로 변화된 사회 생태에 대한 비판과 환멸 등이 문학 분야에 낭만주의 풍토를 자아내는 요인이 됐다.

## ② 사상적 토대

낭만주의는 18세기 말엽부터 19세기 초에 서구와 러시아의 예술 전반과 철학계를 휩쓴 국제적 조류였다. 그런 만큼 사상적인 바탕이 든든했다. 그것은 주로 전대의 신고전주의, 기계문명 숭상(Mechanism), 그리고 이성제일주의(Rationalism)를 거부하는 조류였다.

그것을 집약하면 낭만주의는 자연관에 토대를 두고 꽃망울을 맺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자연은 자연계의 물리적인 자연과 인간의 자연스러움, 자유로움을 가리키는 정신적 자연 양쪽에 걸친다. 이런 생각은 곧 18세기 프랑스의 작가요 철학자인 장 자크 루소와 연결된다. 루소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 『사회 개혁론』과 『에밀』 등을 발표하면서 그 유명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사상을 고취했다. 그의 이런 자연관은 참 흥미롭게도 동양의 “도(道)”에서 강조하는 ‘自然’ 사상과 거의 완전히 일치한다.

루소는 또 이성 만능주의와 반대되는 입장에 서서 인간의 속성은 이성보다 감성에 있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것은 자연사상과 나란히 가는 중에 의미를 갖는다. 자연철학은 인위적(人爲的)인 외부 작용의 성과를 배척하고, 기성 규범과 논리에 지나치게 의존해서 초래되는 병폐를 거부한다. 원래의, 본연(本然)의 상태 속에 참다움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믿음이다. 자연과 감성은 이성 이전이요 그 이상이라는 생각이다.

자연과 감성을 존중하는 주장은 자유와 평등으로 연결되게 마련이었다. 이 네 가지 질(質)이 융합된 아름다움을 숭상하는 심미관(審美觀), 심미 감각이 바로 낭만주의의 체질을 이룬다.

#### 4. 낭만주의의 특징

##### ① 감정, 정서, 서정의 표현

낭만주의의 특색은 감정을 제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이지적인 것보다 감정을 중요시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감정(feeling)과 정서(emotion)의 미학적인 차이다. 감정은 주로 감각적인 느낌이지만 마음의 느낌, 심정도 같이 가기 때문에 넓은 뜻에서는 정서가 포함될 수 있다. 생리적으로 지각하는 것 외에 기쁨, 슬픔, 감탄, 노여움, 공포, 편안함, 행복 등등 가슴과 머리로 느끼면서 생각하는 것도 다 감정이다. 그러나 미학의 견지에서 보자면 감정은 다분히 초보적인 감지, ‘첫 단계’의 심적 반응이고, 그런 느낌들이 여과(濾過) 과정을 거쳐서 의미나 가치가 확대될 때 한 차원 높은 ‘정서’로 승화한다. 여기서 ‘서정(lyricism)’이 올라난다. 서정은 정서가 부르는 ‘노래’라고 해도 좋다. (영어에 들어 있는 “ism”은 물론 무슨 ‘주의’란 뜻이 아니다.)

둘째로 문학은 ‘표현’의 예술이라는 원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낭만주의는 절제 없는 감정 노출이 아니라 세련된 정서로 승화된 느낌의 물결을 ‘표현’하는 태도와 수법이다. 그래서 “인간의 적나라한 본성을 꾸밈없이 보여 준다”(루쏘)라든지, “강렬한 감정의 자연발생적 유

출”(윌리엄 워즈워스)이 좋은 시라고 하는 말도 잘 새겨서 들어야 한다.

## ② 상상의 미학

감정, 정서, 서정은 상상의 세계에서 높은 차원의 미를 창조한다. 상상은 인간의 정신 활동 중에서 가장 큰 힘의 하나요, 그 힘이 창조의 초석으로 작용한다. 재생상상(再生想像)이 아니라 창조적 상상(creative imagination)이야말로 창작의 원천이다. 낭만주의의 본령(本領)은 상상의 힘에 있다. 현실에 대해 비판적이고, 현실을 넘어선 이상의 상태에 대한 동경 — ‘꿈’이 낭만주의의 독특한 향기를 창조해서 뿜어낸다. 낭만주의는 상상의 문학이다.

상상과 함께 여기서 강조해야 할 특질이 독창성이다. 형식상의 규범에 맞춰 모방하는 방식을 거역하는 것이 낭만주의의 생리이기 때문이다. 독창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위해 낭만주의에 자연히 동원되는 수법으로 암시가 중요해졌다. 그래서 상징적인 면이 강하다. 나는 그것을 ‘상상의 미학’이라고 부른다. 상상의 날개를 단 정서가 이상을 향해 날아오르는 정열. 그 상상의 세계가 암시적으로 표현된 미. 훌륭한 낭만주의자들이 원한 것은 그런 수준의 예술작품이다.

## 5. 유럽 각지의 낭만주의 문학

낭만주의는 문학, 철학, 미술(예술), 종교 및 정치 등 여러 분야에 걸친 혁신 운동이다. 전대의 신고전주의와 정통(正統) 신봉에 대한 반동이 특징이다. 그러기 때문에 발생이나 전개가 지리적으로 광범할 수밖에 없다. 몇 개 주요 지역을 대강 살펴보기만 해도 낭만주의의 특색이 드러난다.



### ① 독일

독일의 낭만주의 사상은 철학자들이 원조였다. 특히 헤르더(Herder), 칸트(Kant), 피히테(Fichte), 셸링(Schelling)의 철학에 원천이었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것을 문학에서 확실히 구체화한 것은 저 유명한 1770년대의 “슈투름 운트 드랑크(Sturm und Drang)” — 폭풍과 노도(怒濤)파의 작품이었다. 그들은 유난히 끈덕지게 중세 풍조(Medievalism)에 흥미를 가지면서 낭만주의를 향한 길을 닦았다. 고전주의에 반대하는 문학의 유파를 가리켜 최초로 이 이름을 붙인 슐레겔(Friedrich Schlegel)은 칸트와 피히테의 철학 사상에 대해서도 “낭만적 이상”이란 개념을 곁들였다.

흔히 “독일 낭만주의” — German Romanticism이라는 지칭이 붙을 만큼 뚜렷한 풍토를 만든 인물들이 많다. 레싱(G. E. Lessing), 헤르더(J. G. Herder), 홀덜린(Friedrich Holderlin), 실러(Schiller), 그리고 괴테(Goethe) 등이 그 거장이다. 특히 괴테는 자연과 함께 독일의 중세시대에 대한 각별한 신비감을 가지고 있었다.

### ② 영국

영문학에서 낭만적 요소를 가리자면 상당히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문학사가들은 1798년에서 1870년까지 70여년을 낭만주의 시기로 잡는다. 본격적인 낭만주의 문학은 1798년 워즈워스(Wordsworth)와 콜릿지(Coleridge)의 *Lyrical Ballads*가 출판된 해에 시작됐다고 보는 게 정설이다. 이 서정시집의 재판(1800) 서문에서 워즈워스가 한 말이 공짜 언급, 인용돼 왔다. 그는 시의 특성을 “강렬한 감정의 자연발생적인 유출(the spontaneous overflow of powerful feelings)”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여기 대해 주의를 환기하는

말을 앞에서 했다.) 이 말은 사실상 감정 표현을 억제하지 말고 자연히 흘러넘치게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위즈워스는 또 문학 작품에서 자연스러운 일상용어를 써야 한다고 외쳤다. 한편 콜릿지는 시인의 상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문학에 통용되는 부질없는 규율을 무시했다.

낭만기의 초기, 1798년부터 1832년 사이를 특히 “낭만주의 승리 시대(the Age of the Romantic Triumph)”라고 부를 만큼 이 사조와 운동은 비중이 컸다. 19세기 영국은 낭만시의 전성기다. 거장들의 이름을 들어보자. Byron, Shelley, Robert Burns, Keats, Robert Southey, William Cowper. 그들은 항용 개인으로서의 자아, 삶에 대한 시인 자신의 반응을 중하게 여겼다, 산문에서는 Charles Lamb과 William Hazlitt의 에세이, Thomas De Quincey의 자서전적 고백, Walter Scott의 장편소설 등이 다 낭만주의 문학의 걸작이다. 그중에서도 William Blake가 영국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거목으로 꼽힌다. 그의 시와 그림이 보여주는 찬란한 세계에는 물리적 현실 속에 가로놓인 정신적 현실, 진실이 상상과 상징을 통해 찬란하게 비치고 있다. 블레이크는 참다운 낭만의 마술사다.

### ③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프랑스의 낭만주의 문학은 시작이 비교적 간명하다. 빅토르 위고(Victor Hugo)가 그의 희곡 두 편, 『Cromwell』(1828)과 『Hernani』(1830)의 서문에서 천명한 주장이 바로 낭만주의의 신조(信條)가 된 셈이다. 위고는 특히 무엇을 다루느냐 하는 ‘서브젝트’의 선택과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취급 방식 양면에서 작가, 예술가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주제와 표현의 자유가 낭만주의의 중심에 서게 했다는 말이 된다.

프랑스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 혁명에 따른 정치와 사회적 큰 변동이 부르조아 계급을 중심으로 한 '상류사회'를 부각시키고, 계급사회의 병폐가 늘어난 상황 역시 낭만주의 운동을 촉진했다. 비판적인 사회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특색을 보였다.

위고 이외에 프랑스 낭만주의 거물에 속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본다. 그중에는 한국인에게 친숙한 작가들도 많다. 샤또브리앙(Chateaubrian), 뒤마(Alexandre Dumas pere), 라마르틴느(Alphonse de Lamartine), 비냐(Alfred de Vigny), 뭉쉴(Alfred de Musset), 조르주 상드(George Sand).

이탈리아에서는 지아코모 레오파르디(Giacomo Leopardi)와 아레산드로 만조니(Alessandro Manzoni)가 활약했고,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르 푸쉬킨(Aleksandre Pushkin)과 미하일 레르몬토프(Mikhail Lermontov)가 대표적이었다.

#### ④ 미국

미국 문학사에서는 1830년부터 1865년 사이를 낭만주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취임(1829) 이후 미국이 겪은 사회 제도의 일대 변화와 함께 30년에 걸쳐 낭만주의의 꽃이 실로 찬란하게 만발했다. 이것을 미국 최초의 위대한 창조 기간으로 간주한다.

지금 여기서는 낭만주의 성과를 논하기보다 주요 작가들의 이름을 영어로 나열하는데 그치겠다. 초기의 3대 거물인 Bryant, Irving, Cooper를 비롯해 강렬한 창조력을 떨친 작가들이 즐비하다. 소설가로는 Hawthorne, Simms, Melville, Mrs.Stowe; 시인으로 Poe, Whittier, Longfellow, Lowell, Whitman; 시인이며 에세이스트인 Thoreau, Emerson, Holmes; 평론에 Poe, Lowell, Simms. 그들의 낭만주의 작품은 '낭만기'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미국의 현대문학

을 세계적 수준에서 평가 되게 했다.

## 6. 낭만주의 이전의 '낭만'

지금까지 대강 훑어본 낭만주의는 문학을 주로 한 '운동'으로서의 낭만주의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성격이 다른 “낭만적” 장르가 그 이전에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할만한 일이다.

희곡 분야에 “낭만적 희극(Romantic Comedy)”이라는 게 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주요 관심사요 흥미의 원천인 애정희극을 가리킨다. 로버트 그린(Greene)의 『제임스 4세(James the Fourth)』가 표본으로 꼽히고, 그 영향이 보이는 셰익스피어의 『베로나의 두 신사(Two Gentlemen of Verona)』가 여기 속한다. 셰익스피어는 그 후 『베니스의 상인(The Merchant of Venice)』와 『당신 좋은 대로(As You Like It)』에서 “낭만적 희극”을 완성 시켰다고 평가된다. 그가 만년에 남긴 ‘희 비극(비희극)’ 역시 어느 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낭만적 서사시(Romantic Epic)”라는 것도 있다.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에 걸쳐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시인들이 중세의 로맨스와 고전주의 서사시를 융합해서 발달시킨 서사시를 말한다. Pulci, Boiardo, Ariosto 등의 작품이 있다.

소설에서는 “낭만적 소설”, “낭만소설(Romantic Novel)”이란 장르 용어를 쓴다. 그 특징은 사랑, 모험, 격투를 토대로 한 얘기를 다루는 일이다. 소설이니까 물론 상상과 허구가 주요 요소가 된다. 영문학에서는 월터 스코트(Sir Walter Scott)의 작품을 이 계열에 넣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낭만적 비평”(Romantic Criticism)이라는 문학 용어가 있

다. 이것은 고전주의를 배격한 낭만주의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낭만주의 평론”이란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이 계통의 평론가는 수없이 많다.

## 7. 다른 예술 분야의 낭만

### ① 낭만주의 미술

미술계의 낭만주의는 19세기 초엽에 고전주의의 형식과 규율을 피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이 흐름은 일반적으로 실현성이 없는 이상을 정서적이며 정신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법을 강조한 점이 특색이다. 낭만주의 미술가들은 보는 사람(viewer)의 마음과 구체적으로 특별히 연결되는 면을 산출해내는 정확한 기법을 발전 시켰다.

말로 할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 무생물계의 오브젝트에다 인간의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썼다. 예를 들면 Casper David Friedrich는 야생의 나무들과 희미한 달빛을 그려서 인간의 무한한 그리움을 암시하려고 했다. 그런 시도가 자아낸 결과는 대개 감상적이거나 허황된 것이 됐다. 그와는 달리 들라크로와(Delacroix)의 경우에는 그의 채색 스타일과 색감이 낭만주의에 심취한 경향을 뚜렷이 효과적으로 끌어올렸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밖에도 프랑스, 영국, 독일, 미국 등지의 화가 또는 건축가들 작품에서 낭만주의 전통을 보여주었다.

### ② 낭만주의 음악

음악에서 낭만주의 교향악이 현란하게 울려 퍼진 곳은 독일이다. 이 음악은 감정의 온전한 표현과 형식의 자유가 뚜렷하다. 베토벤,

웨버, 슈베르트의 음악에도 낭만주의 요소가 짙었지만, 최고조에 달한 것은 베를리오즈, 멘델스존, 슈만, 쇼팽, 리스트, 바그너 등의 음악이다.

그밖에 완전한 낭만주의자는 아니라 해도 보통 낭만주의 중엽쯤에 속하는 작곡가로 인정되는 유럽 각지의 대가에 브람스, 차이코프스키, 드볼작, 그리크 등이 있고, 말기의 작곡가 일군에는 엘가, 말러, R. 슈트라우스, 시벨리우스 등이 포함된다. 우리가 보통 “클라식 음악”이라 부르고 좋아하는 서양 음악은 거의 다 이 낭만주의자들의 작품이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런 명단에 올라야 할 사람들은 이밖에도 많다.

## 참고문헌

낭만주의를 심도 있게 이해 혹은 연구하기 위해 읽어야 할 저서가 수없이 많은 가운데서 문학의 일부를 서양 것만 적어둔다. 오래 전 책으로는 J. Barzun의 *Romanticism and the Modern Ego*(1944)가 있고, 현재에 가까운 명저로 다음 몇권을 들수 있다. L. R. Furst, *Romanticism in Perspective*(1970); R. F. Gleckner와 G. E. Ensco 편, *Romanricism*(2nd ed. 1970); M. Praz, *The Romantic Agony*(tr., 2nd ed. 1970); I. Berlin, *The Roots of Romanticism*(1999).